

# 거대중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기회



**박 명 규**  
(주)힐스로지스틱 대표이사

한중 국제 물류 포럼이 5월18일에서 21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열렸다. 중국 청도시는 중국동부연해의 중요한 경제중심도시, 항구도시, 국가역사문화명성 및 풍경관광 명승지이다.

또한, 중국 14개 연해 개방도시 및 8개 국제회의 도시중 대표적인 도시로, 상해 다음으로 중요한 대외무역항구중의 하나이다. 특히 한국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어 한중교류가 활발한 항구도시이다.

그리고 해양과학기술 연구단지로서 그 중국내 명성이 자자한 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이번 한중 물류전문가 국제 포럼에는 양국의 국내외 물류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중 물류표준화 및 국제 교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아주 의미있는 자리라 하겠다.



또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과 현실적인 정보들이 대거 교환되는 자리였고, 중국측의 적극적인 행사진행에 따른 국내 초청인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안태호 물류협회 명예회장과 서병륜 물류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정부, 국내의 산업계, 학계 관계자 전문인력 등이 대거 초청되었으며, 이번 기회로 한중간 국제물류교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중국측 인사로는 청도시 시장과 투자유치를 주도하는 인민정부 산하 조직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중물류전문가 초청 국제 물류포럼이 끝난 후 진행된 하일 산업단지 방문과, 청도 보세구역에 관할하는 청도 보세청의 방문은 매우 의미있는 행사라 기억되었다.

현재, 70만평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도보세지역은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특구형식의 운영을 하고 있으나, 40만평의 2차 보세지역을 추가 확장공사지역으로 허가를 이미 득해 놓은 상태이고, 청도시가 북방물류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의욕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전과 달리 라벨 가공작업의 기능을 허용하여 한국의 귀금속업계의 우량업체들이 대거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고, 연간 150만TEU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총15개 연안 항구중 천진, 대련과 함께 북방이 3개 주요항구 중 유일한 보세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새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장기분양이 시작될 물



류단지는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고, 창고 저장기능, 수출가공기능, 국제무역기능, 상품저장기능, 포장물류 기능들이 부각되어 명실공히 북방지역의 동북아 물류중심항구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을 차근차근 실현해 가고 있었다.

현재는 제조업 원가절감 지원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조만간 물류산업의 원가절감 지원정책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한다.

현재, 각종 규제 하에 있던 불합리한 규정들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대폭 개선되어 가고 있다. 관세도 출항 후 환급받던 것을 보세구 도착 후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또 보세구 내에서 컨테이너 개봉도 불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컨테이너 개봉 후 배분기능도 가능하고 또 이를 타 지역으로 운송하게 허용하고 있다.

또한 보세지역 내 세관이 위치되어 있어 통관효율을 높이고 원가 절감 폭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2004년 4월15일에 우선적으

로 상해 시부터 실시하였으나, 청도시에도 곧 실시할 예정이다. 2004년 10월경에는 물류단지를 완성하고 2005년도부터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2440미터를 거쳐서 조성된 전만항을 시찰하고 7개 부두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프라를 시찰하면서 거대한 중국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판단되었다.

총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청도시는 2위의 성장세를 지니고 있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아주 인상적인 항구도시였다. 청도맥주로 유명한 주요산업시설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이번 양국간 조성된 물류교류의 기회는 앞으로 양국간, 또 인천~청도간 항구 도시간 교류를 통한 상생전략의 구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류**